

【 국내금융 뉴스 】

금감원, 금융사 현장검사 강화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 변동 요인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 취약 금융회사 및 일선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동안 종합검사는 미래 손실 가능성보다 과거 경영성과 중심의 경영실태 평가등급에 따라 검사주기*를 적용하여 왔으나, 금융위기 상황에서 잠재리스크요인의 급변동을 반영할 수 없어 당초 검사주기로는 감독대응에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음.
 - * 경영실태 평가등급 종합검사 주기(현행) : 1,2등급-2년 이상, 3등급-1.5년 이상, 4등급-1년, 5등급-0.5~1년
- 이에 리스크취약 등 문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당초 검사주기에 관계없이 종합검사를 매년 실시할 예정임.
 - 문제 금융회사의 예시로는 상시감시 결과 리스크관리실태평가 종합등급이 취약하거나 거액 부실여신 발생 등으로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감독법규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해당됨.
- 영업점 연계검사에 있어서는 종합검사와 연계하여 검사기간 중 또는 사전에 영업점 중 일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이는 감독정책이 일선 현장에 제대로 전달·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영업점을 점검하는 것이며, 연계검사 이외에도 리스크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영업점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임.
- 영업점 점검 주요 항목으로는 감독당국, 본부의 정책 등이 일선 영업점에서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중소기업대출 관련 성과평가시스템(KPI) 운영 실태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임.
 - 최근 금융회사의 취급업무 다양화로 여러 업무를 겸무하는 현상이 늘어나는데 비해 견제기능은 취약한 실정이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일선 영업점에 제대로 전달·시행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점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금융위기 대응 현장검사 강화,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검사총괄팀, 2/25)